

#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관 비교

## Occupational Outlooks of Senior High School Female Students

이 향 숙 · 조 재 순\*  
청주의국어고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Lee, Hyang Sook · Cho, Jae Soon\*  
Cheong J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 Korea Natl. Univ. of Educ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individuals and family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female students, and the impacts of the characteristics on the their occupational outlook. The number of 792 female students in 4 general and 5 vocational high schools in Chôngju area were sampled during September 6-10, 1993. There are more differences in family characteristics rather than individu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types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Both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occupational outlooks of the respondents. Therefore, the types of school affect their occupational outlooks. Over 50% of vocational students want to have a junior college education.

### I. 서론

우리나라는 여성 취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 취업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1993). 직업관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발달과업상 직업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를 고등학교 재학중으로 보고 있다(이정근, 1984). 현재 고등학교에서 직업관 지도는 대체로 특별활동의 학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교과의 직업과 진로 단원을 통하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황주환, 1982),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권용환, 1990; 김택춘, 1989; 박춘식, 1980; 백중기, 1991; 신덕자, 1988; 신장섭, 1987; 안호선, 1986; 이하원, 1984; 정진구, 1987; 추인호, 1987; 홍영란, 1983; 황주환, 1982),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인문계나 실업계, 농업계, 공업

계, 상업계 등 특정 학교 또는 계열의 학생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계열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가 미흡하다. 그리고 농업계 여고생(김택춘, 1989; 추인호, 1987)과 상업계 여고생(신덕자, 1988)을 제외하고는 주로 남학생만을 또는 남녀학생 구별 없이 연구되어 있어 여고생을 대상으로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여고생의 직업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여고생의 직업관을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에 따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여학생을 선정하여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계열간 학생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여학생 진로지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개인 및 가족특성의 차이, 그리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학교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직업관의 차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여고생의 직업관(직업활동 예정시기, 직업을 갖는 이유, 선택할 직업의 조건, 직업활동 예정기간,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다.

2) 여고생의 개인특성(출생순위, 형제유무, 건강, 외모, 성격, 성적, 직업에 대한 관심시기, 학력포부)은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특성에 따른 직업관을 비교 분석한다.

3) 여고생의 가족특성(가정의 주 소득원, 가족 수, 현 거주지, 가정의 경제형편,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가정에서의 직업관심도)은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족특성에 따른 직업관을 비교 분석한다.

4) 여고생의 학교특성(진로상담 횟수, 진로 지도 만족도)은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학교특성에 따른 직업관을 비교 분석한다.

## II. 관련 문헌 고찰

청소년기는 직업에 관한 현실적 선택의 시기가 아닌 잠정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때 형성된 직업관은 미래의 직업생활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이정근, 1984). 그러므로 이 시기는 직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교육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관을 연구한 문헌을 고찰해 보면 연구 대상에 있어 계열은 인문계(박춘식, 1980; 정진구, 1987; 황주환, 1982), 인문계와 실업계(경상북도교육연구원, 1992; 신장섭, 1987; 이하원, 1984; 홍영란, 1983), 상업계(신덕자, 1988; 안호선, 1986), 공업계(권용환, 1990; 백중기, 1991), 농업계(김택춘, 1989; 추인호, 1987)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남학생만이거나(권용환, 1990; 백중기, 1991; 신장섭, 1987), 여학생만(김택춘, 1989; 신덕자, 1988; 추인호, 1987), 또는 남녀

(경상북도교육연구원, 1992; 박춘식, 1980; 안호선, 1986; 이하원, 1984; 정진구, 1987; 홍영란, 1983; 황주환, 1982)이었으며, 표집된 지역은 대도시(황주환, 1982),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 이하(권용환, 1990; 박춘식, 1980; 백중기, 1991; 신덕자, 1988), 도시와 농촌(경상북도교육연구원, 1992; 안호선, 1986; 정진구, 1987; 홍영란, 1983) 등으로 연구되었다.

### 직업관 측정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직업관은 직업활동 예정시기(신장섭, 1987; 황주환, 1982), 직업을 갖는 이유(정진구, 1987), 선택할 직업의 조건(이하원, 1984; 권용환, 1990), 직업활동 예정기간(신덕자, 1988), 장래 희망직업(정진구, 1987; 신장섭, 1987) 등이 있다.

직업활동 예정시기는 남학생의 경우 일반계 학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실업계 학생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신장섭, 1987) 밝혀졌으며, 남자는 대학졸업 후,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황주환, 1982)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는 이유로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소질계 발과 자아실현, 생계유지(정진구, 1987) 등으로 나타났다.

선택할 직업의 조건은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 모두 적성과 능력, 안정성, 장래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하원, 1984; 권용환, 1990). 직업활동 예정기간은 여학생의 경우 직업활동을 적극 찬성하면서, 결혼 후 어느 기간까지 직업활동을 하겠다고 하였다(신덕자, 1987). 그 기간에 대해 한국여성개발원(1987)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키워놓고 다시 시작(24.1%)하거나 결혼 전까지(21.4%) 또는 가정경제 안정까지(18.6%)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의 직업활동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경영자총협회, 1987).

장래 희망직업은 일반계와 실업계의 모든 학생이 전문기술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장섭, 1987; 정진구, 1987).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직업관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직업활동 예정시기, 직업을 갖는 이유, 선택할 직업의 조건, 직업활동 예정기간, 장래 희망직업 등을 들 수 있겠다.

### 개인특성과 직업관

직업관과 관련된 개인특성은 건강(황주환, 1982), 성격(이하원, 1984), 성적(홍영란, 1983), 직업관심시기(정진구, 1987), 학력포부(신장섭, 1987) 등을 들 수 있다.

건강에 따라 직업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황주환, 1982), 성격은 평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생이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며(이하원, 1984), 성적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홍영란, 1983).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로는 일반계 학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진구, 1987), 학력포부는 일반계 학생은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의 순이었고, 실업계 학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의 순으로 나타났다(신장섭, 1987).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직업관에 관련된 개인특성으로는 건강, 성격, 성적, 직업관심시기, 교육포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연구 대상이 여고생인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변수 이외에 외모의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출생순위와 남녀형제 유무도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 가족특성과 직업관

직업관과 관련된 가족특성으로는 가족 수(백중기, 1991), 거주지(박춘식, 1980), 가정의 경제적 수준(박춘식, 1980; 이하원, 1984), 부의 직업(홍영란, 1983), 부모의 학력(박춘식, 1980; 이하원, 1984), 가족의 직업관심도(신덕자, 1988)를 들 수 있다.

가족 수에 따라 직업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백중기, 1991), 거주지와 관계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전문직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박춘식, 1980),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의 관계에서는 상류층의 자녀일수록 전문직을 원하며 직업세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박춘식, 1980; 이하원, 1984).

부의 직업은 실업계 학생의 경우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며(홍영란, 1983), 부모의 학력과 관계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전문직을 원하며 장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박춘식, 1980; 이하원,

1984).

가족의 직업관심도는 가정에서 직업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감하거나 자주하는 학생이 많아 가족의 직업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덕자, 1988).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직업관에 영향을 주는 가족특성으로는 가족 수, 거주지, 가정의 경제적수준, 부의 직업, 부모의 학력, 가족의 직업관심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변수 이외에 가정의 주소득원과 어머니의 직업도 영향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특성과 직업관

직업관과 관련된 학교특성으로는 진로상담 횟수(경상북도교육연구원, 1992; 정진구, 1987; 신덕자, 1988), 진로지도 만족도(경상북도교육연구원, 1992; 신덕자, 1988), 학생의 계열(경상북도교육연구원, 1992) 등을 들 수 있다.

진로상담 횟수는 상업계 학생의 경우 별로 상담하지 않는다(신덕자, 1988)와 인문계 학생의 경우 1~2회 정도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구, 1987). 또한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진로상담 횟수가 적은 데 비해 도움 정도는 많다고 나타났다(경상북도교육연구원, 1992). 진로지도 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덕자, 1988).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직업관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으로는 진로상담 횟수, 진로지도 만족도, 학생의 계열을 들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변수 이외에 학교 유형(공학, 여고)의 영향이 있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청주 시내와 청주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 유형, 학생의 계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4개교(397명)와 실업계 고등학교 5개교(395명)에서 선정하였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여자고등학교 3개교(300명)와 남·녀공학 고등학교 6개교(492명)에서 선정하였다. 1993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학생의 계열

및 학교 유형별로 100명씩 표집하여 800명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직접 응답하게 하였으며 79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처리는 연구 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의 변인과 학생의 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의 변인에 따른 직업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 학생의 일반적 특성**

**1) 개인특성**

연구 대상자의 개인특성을 살펴 본 결과 출생순위가 첫째인 학생이 1/3 정도로 가장 많았고 남자형제 중 남동생만 있는 학생이 절반 정도, 여자형제 중 언니만 있는 학생이 1/3정도였고, 자신의 건강상태, 외모,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적은 정상분포이었다. 연구 대상 학생이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기는 절반 이상이 중학교 3학년 때 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로 나타났다으며 학력포부는 절반 정도의 학생이 4년제 대학 졸업을 원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연구 대상 학생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의 계열선택은 학생의 개인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되어 계열에 따른 개인특성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표 1>. 일반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의 개인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외모에 자신이 더 있었고 직업에 대해 더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으며 학력포부도 더 높았다. 그러나 건강, 성격, 성적, 출생순위, 남자형제 유무, 여자형제 유무는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특성 9개 변수 중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3개로 대체로 개인특성에는 외모, 직업에 대한

관심시기, 학력포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

**2) 가족특성**

연구 대상 학생의 가족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주 소득원은 주로 아버지에게 있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5.3명이었고, 2/3 정도가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보통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나 관청의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표1> 학생의 계열별 개인특성

구분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t
		(N=397)	(N=395)	
개인 특성	건강	3.60	3.61	-.05
	외모	3.00	2.78	3.94***
	성격	3.63	3.56	1.16
	성적	3.11	3.14	-.40

\*\*\* p < 0.001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국민학교	81	20.4	22	5.6	103	13.0
중학교 1,2학년	73	18.4	43	10.9	116	14.6
중학교 3학년	109	27.4	64	16.2	173	21.8
고등학교 1학년	88	22.2	157	39.7	245	31.0
고등학교 2학년	36	9.1	94	23.8	130	16.4
아직 안함	10	2.5	15	3.8	25	3.2
계	397	100	395	100	792	100
$\chi^2=99.57$		df=5		p=.0000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고졸	10	2.5	96	24.4	106	13.4
전문대학졸	33	8.3	236	59.8	269	34.1
4년제대학졸	283	71.5	53	13.5	336	42.5
대학원졸	70	17.7	9	2.3	79	10.0
계	396	100	394	100	790	100
$\chi^2=427.51$		df=3		p=.0000		

의 학력은 고졸,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장래 직업에 대한 가정에서의 관심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학생의 가족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주 소득원은 주로 아버지에게 있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5.3명이었고, 2/3 정도가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보통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의 장래 직업에 대한 가정에서의 관심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의 계열 선택은 학생의 가족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되어 계열별 가족특성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표2>. 일반계 여

<표 2> 학생의 계열별 가족특성

학생의 계열 구분		일반계 (N=397)	실업계 (N=395)	t
가족 특성	가정형편	3.12	2.97	4.32***
	가정의직업 관심도	4.21	3.91	4.96***
	가족수	5.20	5.27	-.97

\*\*\* p < 0.001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가정의 주 소득원						
아버지	330	83.1	260	65.8	590	74.5
어머니	61	15.4	113	28.6	174	22.0
기타	6	1.5	22	5.6	28	3.5
계	397	100	395	100	792	100

$\chi^2=32.98$        $df=2$        $p=.0000$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거주처						
시지역	263	66.2	228	58.0	491	62.2
시외지역	134	33.8	165	42.0	299	37.8
계	397	100	393	100	790	100

$\chi^2=5.34$        $df=1$        $p=.0208$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아버지 직업						
농업·임업·축산업	70	17.8	135	35.2	205	26.4
생산·서비스직	12	3.1	57	14.8	69	8.9
판매직	56	14.3	74	19.3	130	16.8
사무직	209	53.5	96	25.0	305	39.3
행정 및 관리직	28	7.2	19	4.9	47	6.1
전문기술직	16	4.1	3	0.8	19	2.5
계	391	100	384	100	775	100

$\chi^2=104.88$        $df=5$        $p=.0000$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아버지 학력						
국민학교 졸업이하	48	12.1	110	28.2	158	20.1
중학교졸업	61	15.4	108	27.7	169	21.5
고등학교 졸업	171	43.0	139	35.6	310	39.3
대학교 졸업이상	117	29.5	33	8.5	150	19.1
계	397	100	390	100	787	100

$\chi^2=87.69$        $df=3$        $p=.0000$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어머니 학력						
국민학교 졸업이하	86	21.7	180	46.0	266	33.7
중학교졸업	137	34.5	133	33.9	270	34.2
고등학교 졸업	145	36.5	75	19.1	220	27.9
대학교 졸업이상	29	7.3	4	1.0	33	4.2
계	397	100	392	100	789	100

$\chi^2=74.46$        $df=3$        $p=.0000$

고생이 실업계 여고생보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더 좋았고 가정에서의 직업관심도가 더 높았으며, 가정의 주 소득원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높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모두 더 높았다. 그러나 가족 수와 어머니 직업 유무는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특성 9개 변수 중 계열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

는 7개로 가정 형편, 가정의 직업관심도, 가정의 주 소득원, 거주지, 아버지 직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이었다.

3) 학교특성

연구 대상 학생의 학교특성으로 학교에서의 진로에 대한 상담횟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보았다<표 3>. 연구 대상 학생의 학교특성을 살펴본 결과 진로에 대한 상담 횟수는 없거나 1~2회 정도이고,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계열과 학교 유형별로 학교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진로상담 횟수는 일반계 학생이 많았고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실업계 학생이 높았으나 학교의 유형별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학생의 계열별 학교특성

구분		학생의 계열		t
		일반계 (N=397)	실업계 (N=395)	
학교 특성	진로상담횟수	1.24	0.72	6.38***
	진로지도만족도	2.10	2.52	-7.27***

\*\*\* p < 0.001

2. 일반적 특성과 직업관

1) 연구 대상 학생의 직업관 연구 대상 학생들의 직업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래 직업활동 예정시기에 대한 견해, 직업을 갖는 이유, 장래 직업을 가질 경우 선택할 직업의 조건, 졸업 후의 직업활동 예정기간, 장래 희망직업을 알아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대상 학생 중 3/4 정도가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겠다고 했으며, 직업은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해서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선택할 직업의 조건으로는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하였으며 직업 활동은 평생동안 지속할 예정이었고, 장래 희망직업은 절반 이상이 전문기술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특성과 직업관

연구 대상 학생의 개인특성과 직업관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개인특성과 직업

<표 4> 연구 대상 학생의 직업관

직업관	구분	N	%
직업활동 예정시기	고등학교졸업후	204	26.0
	전문대학졸업후	187	23.7
	4년제대학졸업후	395	50.3
	계	786	100
직업을 갖는이유	생계유지	116	14.7
	부의획득	97	12.3
	소질계발및자아실현	577	73.0
	계	790	100
선택할 직업의조건	장래전망이좋은직업	182	23.0
	근무환경이좋은직업	164	20.7
	흥미나적성에맞는직업	445	56.3
	계	791	100
직업활동 예정기간	결혼할때까지	84	10.6
	경제적안정까지	143	18.1
	정년퇴직까지	90	11.4
	평생	472	59.9
계	789	100	
장래 희망직업	전문기술직	479	60.9
	행정및관리직	29	3.7
	사무직	161	20.5
	판매직	27	3.4
	서비스직	84	10.7
	농·임·축산업	6	0.8
	계	786	100

관의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도는 <표 5>와 같다.

개인 특성과 직업관을 교차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중 학력포부는 직업관 다섯가지 모두와 관련이 있었으며 직업관심시기와 출생 순위는 직업관 세가지와 관련이 있었다. 외모는 직업관 한가지와 관련이 있었고, 남자형제 유무, 여자형제 유무, 건강, 성격, 성적의 다섯가지 개인 특성은 여고생의 직업관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특성과 직업활동 예정시기 직업관 중 직업활동 예정시기와 유의한 관련을 나타낸 개인특성은 출생순위, 외모, 직업관심시기, 학력포부이었다. 즉 출생순위가 빠른 학생이,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 직업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빠른 학생이, 학력포부가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 희망 시기가

<표 5> 개인 특성과 직업관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도

개인특성 직업관	출생 순위	남자형제 유무	여자형제 유무	건강 상태	외 모	성 격	성 적	직업 관심시기	학력 포부
직업활동 예정시기	.0073				.0007			.0000	.0000
직업을 갖는 이유	.0085								.0000
선택 할 직업의 조건									.0020
직업활동 예정기간								.0000	.0000
장 래 희 망 직업	.0035							.0000	.0000

늦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질 예정이었다. 반면에 출생순위가 낮은 학생이, 외모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직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학력포부가 낮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희망시기가 빨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과 직업을 갖는 이유** 직업을 갖는 이유와 개인특성과의 교차분석에 대한 결과 출생순위, 학력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체로 출생순위가 빠르거나 학력포부가 높은 학생은 직업을 갖는 이유로서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을 중요시하였고 출생순위가 낮거나 학력포부가 낮은 학생은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특성과 선택할 직업의 조건** 자신이 장래 선택할 직업의 조건에서는 개인특성 중 유일하게 학력포부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즉 학력포부가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보다 장래 직업의 조건으로서 흥미나 적성에 맞는 것을 중요시하고, 학력포부가 낮은 학생은 높은 학생보다 근무환경이 좋은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족특성과 직업관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도

가족특성 직업관	주 소득원	가족 수	현 거주지	가정 형편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유무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가정의 직업 관심도
직업활동 예정시기	.0000		.0465	.0000	.0000		.0000	.0000	.0000
직업을 갖는 이유			.0002	.0001	.0054		.0034	.0001	
선택할 직업의 조건									.0381
직업활동 예정기간					.0425		.0376		
장 래 희 망 직업					.0055		.0002	.0091	

**개인특성과 직업활동 예정기간** 개인특성 중 직업활동 예정기간과의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직업관심시기, 학력포부이었다. 개인특성과 직업활동 예정기간과의 관계에서 직업에 일찍 관심을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력포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직업활동 예정기간을 길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과 장래 희망직업** 장래 희망하는 직업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개인특성은 출생순위, 직업관심시기, 학력포부이었다. 즉 출생순위가 빠른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직업관심시기가 빠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력포부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전문기술직을 더 희망하고 있으며, 행정·관리, 사무직과 판매, 서비스, 농·임·축산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출생순위가 낮고, 직업에 대해 관심을 늦게 갖거나 아직 갖지 않았고, 학력포부가 낮은 학생인 경우가 더 많았다.

### 3) 가족특성과 직업관

연구 대상 학생의 가족특성과 직업관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가족특성 중 직업관과 유의한

관련이 가장 많은 것은 아버지의 직업과 아버지의 학력으로서 직업관 네가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학력은 직업관 세가지와 관련이 있고, 거주지와 가정 형편, 가정에서의 직업관심도는 직업관 두가지, 가정의 주 소득원은 직업관 한가지와 관련이 나타났으나 가족 수와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여고생의 직업관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가족특성과 직업활동 예정시기** 직업관 중 직업활동 예정시기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가족특성은 가정의 주 소득원, 거주지, 가정의 경제적 형편,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에서의 직업관심도이다. 즉 직업활동 예정시기는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주 소득원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의 학생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이,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높은 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생의 장래 직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보다 4년제 대학 졸업 후 직업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과 직업을 갖는 이유** 직업을 갖는 이유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가족특성은 거주지, 가정 형편, 아버지 직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이며, 가정의 주 소득원, 가족 수, 어머니 직업 유무, 가정의 직업관심도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정 형편이 중 이상인 학생이,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사무직 이상인 학생이, 부모의 학력이 각각 고졸 이상인 학생이,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보다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이 직업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특성과 직업선택의 조건** 장래 선택할 직업의 조건과 가족특성 중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변인은 가정에서의 직업관심도 변수 뿐이었다. 가정에서의 직업관심도가 보통인 경우의 학생은 다른 경우의 학생보다 흥미나 적성을 선택할 직업의 조건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가정에서 본인의 직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의 학생은 다른 경우의 학생보다 근무 환경이 좋은 것을 선택할 직업의 조건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가정에서 본인의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편이거나 아주 많이

있다고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장래 전망을 직업의 조건이라고 한 비율이 높았다. 가족특성과 직업활동 예정기간 직업활동 예정기간과 유의한 관련을 보인 가족특성은 아버지 직업, 아버지 학력이었다. 즉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높은 학생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보다 직업활동을 오래 지속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과 장래 희망직업** 장래 희망직업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가족특성은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세 변수이었다. 즉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높은 학생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보다 전문기술직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교특성과 직업관

연구 대상 학생들의 직업관과 학교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7> 학생의 계열은 직업관 다섯 가지 모두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고, 학교의 유형은 직업관 세가지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으며, 진로상담 횟수는 직업관 두가지와,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관 한가지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표 7> 학교특성과 직업관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도

직업관 \ 학교특성	진로상담 횟수	진로지도 만족도	학생의 계열	학교의 유형
직업활동예정시기	.0000	.0000	.0000	.0000
직업을갖는이유			.0000	
선택할직업의조건			.0009	
직업활동예정기간			.0000	.0171
장래희망직업	.0001		.0000	.0000

**학교특성과 직업활동 예정시기** 직업활동 예정시기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학교특성은 진로상담 횟수, 진로지도 만족도, 학생의 계열, 학교의 유형이었다<표8>. 진로상담 횟수가 1회 이상인 학생이, 진로지도에 불만족한 학생이, 일반계 학생이,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업활동 예정시기	학생의 계열		실업계		계	
	일반계 N	%	N	%	N	%
고등학교 졸업후	6	1.5	198	50.4	204	26.0
전문대학 졸업후	22	5.6	165	42.0	187	23.8
4년제대학 졸업후	365	92.9	30	7.6	395	50.2
계	393	100	393	100	786	100

$\chi^2=574.17$        $df=2$        $p=.0000$

직업활동 예정시기	학교의 유형		남·녀공학교 등학교		계	
	여자 고등학교 N	%	N	%	N	%
고등학교 졸업후	73	24.5	131	26.8	204	26.0
전문대학 졸업 후	36	12.1	151	30.9	187	23.8
4년제대학 졸업후	189	63.4	206	42.3	395	50.2
계	298	100	488	100	786	100

$\chi^2=44.627$        $df=2$        $p=.0000$

학교특성과 직업을 갖는 이유 직업을 갖는 이유와 관련있는 변인은 학생의 계열 뿐으로 <표 9> 실업계 학생보다 일반계 학생이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이 반면에 실업계 학생은 일반계 학생보다 생계유지가 직업을 갖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부의 획득이라고 한 경우는 실업계 학생이 약간 높긴 하지만 그 차이는 작았다. 이 결과는 인문계 학생의 경우 직업을 갖는 이유를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이라고 한 선행연구(정진구, 1987)와 일치한다.

학교특성과 선택할 직업의 조건 장래 선택할 직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난 변인도 학생의 계열 뿐이었는데 <표 10> 실업계 학생보다 일반계 학생들은 장래 선택할 직업의 조건으로 흥미나 적성에 맞는 것이, 반면에 실업계 학생은 근무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장래 전

망은 실업계 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긴 했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9> 직업을 갖는 이유와 학교특성과의 교차분석

직업을 갖는 이유	학생의 계열		실업계		계	
	일반계 N	%	N	%	N	%
생계유지	32	8.1	84	21.4	116	14.7
부의획득	44	11.1	53	13.5	97	12.3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	321	80.8	256	65.1	577	73.0
계	397	100	393	100	790	100

$\chi^2=31.45$        $df=2$        $p=.0000$

<표 10> 선택할 직업의 조건과 학교특성과의 교차분석

선택할 직업의 조건	학생의 계열		실업계		계	
	일반계 N	%	N	%	N	%
장래전망	87	22.0	95	24.1	182	23.0
근무환경	63	15.9	101	25.6	164	20.7
흥미·적성	246	62.1	199	50.3	445	56.3
계	396	100	395	100	791	100

$\chi^2=14.12$        $df=2$        $p=.0009$

학교특성과 직업활동 예정기간 직업활동 예정기간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학생의 계열 및 학교의 유형으로 <표11> 일반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남녀공학교등학교의 여학생보다 직업활동을 오래 지속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학교특성과 장래 희망직업 장래 희망직업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학교특성 변인은 진로 상담 횟수와 학생의 계열 및 학교의 유형이었다.

학교 계열에서 일반계 학생은 실업계 학생보다 전문기술직에, 실업계 학생은 일반계 학생보다 행정·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농·임·축산업의 희망 비율이 높아 대체적으로 일반계 학생이 전문기술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유형과의 관계에서는 여자고등학

교 학생은 남녀공학 고등학교 학생보다 전문 기술직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고, 남녀공학 고등학교 학생은 여자고등학교 학생보다 판매, 서비스, 농·임·축산업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았다.

<표 11> 직업활동 예정기간과 학교특성과의 교차분석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직업활동 예정기간							
결혼할때까지	31	7.8	53	13.5	84	10.6	
경제적안정	46	11.6	97	24.7	143	18.1	
정년퇴직까지	52	13.1	38	9.7	90	11.4	
평생동안	267	67.5	205	52.1	472	59.9	
계	396	100	393	100	789	100	
		$\chi^2=34.26$		df=3		p=.0000	

학교의 유형	여자 고등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계		
	N	%	N	%	N	%	
직업활동 예정기간							
결혼할때까지	25	8.3	59	12.1	84	10.6	
경제적안정	46	15.3	97	19.8	143	18.1	
정년퇴직까지	45	15.0	45	9.2	90	11.4	
평생동안	184	61.4	288	58.9	472	59.9	
계	300	100	489	100	789	100	
		$\chi^2=10.81$		df=3		p=.017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개인 및 가족특성의 차이, 그리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학교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직업관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청주시와 그 인근 지역의 일반계(인문계열, 자연계열)와 실업계(상업계열, 농업계열, 공업계열) 고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1993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792부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표 12> 장래 희망직업과 학교특성과의 교차분석

학생의 계열	일반계		실업계		계		
	N	%	N	%	N	%	
장래 희망직업							
전문기술직	312	79.0	167	42.8	479	60.9	
행정·관리, 사무직	60	15.2	130	33.2	190	24.2	
판매,서비스, 농·임·축	23	5.8	94	24.0	117	14.9	
계	395	100	391	100	786	100	
		$\chi^2=112.75$		df=2		p=.0000	

학교의 유형	여자 고등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계		
	N	%	N	%	N	%	
장래 희망직업							
전문기술직	202	67.6	277	56.9	479	60.9	
행정·관리, 사무직	74	24.7	116	23.8	190	24.2	
판매,서비스, 농·임·축	23	7.7	94	19.3	117	14.9	
계	299	100	487	100	786	100	
		$\chi^2=20.31$		df=2		p=.0000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개인특성 9개 변수 중에서는 일반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외모에 자신이 있었고 직업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으며 학력포부도 높았다. 출생순위, 남자형제 유무, 여자형제 유무, 건강, 성격, 성직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특성 9개 변수 중 7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가정 형편이 더 좋았고 가정에서의 직업관심도가 높았으며, 가정의 주 소득원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 지위가 높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모두 높았다. 가족 수,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학교특성에서는 일반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진로상담 횟수는 많았으나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계열별로는 학생들의 개인특성보다 가족특성과 학교특성의 차이가 더 컸다. 이러한 차이는 후에 밝혀질 계열별 학생들의 직업관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특성과 직업관의 관련을 검증한 결과 개인특성 중 학력보다는 각 직업관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개인특성 중 가장 중요한 변수였으며 그 다음은 출생순위와 직업관심시기로서 각 3개의 직업관 변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외모는 한개의 직업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형제 유무와 여자형제 유무, 건강, 성격, 성적은 직업관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대체로 학력보다는 높을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가 4년제 대학 졸업 이후였고, 직업을 갖는 이유로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을 중요시하였으며 장래 선택할 직업의 조건으로는 흥미나 적성에 맞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직업활동 예정기간은 길게 계획하고 있었으며 장래 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가 늦고, 직업을 갖는 이유로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을 중요시하였으며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을 원하고 있었다. 직업관심시기가 빠를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가 늦고, 직업활동을 오래 지속할 예정이었으며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을 원하였다. 외모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4년제 대학 졸업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셋째, 가족특성과 직업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직업과 아버지 학력이 가장 관련이 큰 가족특성 변수이었으며 그 다음은 어머니 학력으로 가정 형편보다 더 관련성이 깊었다. 그 다음은 가정의 직업관심도와 현 거주지였으며 가정의 주 소득원은 하나의 직업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가족 수와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직업관에 어머니의 영향보다는 아버지의 영향이 더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 지위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가 4년제 대학 졸업 이후였고 직업을 갖는 이유로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을 들었으며 직업활동 예정기간은 평생 계속할 것으로 응답하였고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을 원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가 늦고 직업을 갖는 이유를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이라고 했으며 장래 직업으로 전문기술직을 희망하였다. 가정 형편이 좋을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4년제 대학 졸업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직업을 갖는

이유로는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을 들었다. 가정의 직업관심도가 많을수록 직업활동 예정시기가 늦고 선택할 직업의 조건으로 흥미나 적성을 중요시 하였다. 거주지가 시 지역인 경우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늦게 계획하고 있었으며 직업을 갖는 이유로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을 중요시하였다. 가정의 주 소득원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의 학생이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4년제 대학 졸업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특성과 직업관의 관계에서는 학생의 계열에 따라 직업관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은 학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컸으며 진로상담 횟수나 진로지도 만족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료 표집시 남녀 공학이 실업계에 편중되었으므로 학교 유형에 의한 차이는 표집시의 제한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진로상담 횟수나 진로지도 만족도에 의한 차이에서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열에 따라서는 일반계 학생이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4년제 대학 졸업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직업을 갖는 이유로 소질개발 및 자아실현을 중요시하였고 선택할 직업의 조건은 흥미나 적성에 맞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직업활동 예정기간은 평생 계속할 계획이었으며 장래 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을 희망하였다. 학교 유형으로는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늦게 계획하고 있었으며 직업활동을 오래 지속할 예정이었고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전문기술직을 원하였다. 진로상담 횟수는 1회 이상인 학생이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4년제 대학 졸업 이후로 계획하였으며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전문기술직이었다. 진로지도 만족도가 낮은 학생이 직업활동 예정시기를 4년제 대학 졸업 이후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여학생의 직업관은 각자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관 변수 중 특히 직업활동 예정시기는 개인, 가족, 학교특성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변수이었다. 장래 희망직업은 개인특성과 학교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반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가 유의했다. 직업관 중 학생의 특성에 따라 가장 유의한 차이가 없는 변수는 선택할 직업의 조건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할 때에는 학

생의 개인특성이나 가족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알맞는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특성보다는 가족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크며, 일반계와 실업계 여학생 간의 개인 및 가족특성과 직업관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다. 또한 일반계와 실업계 학교 모두 진로상담의 기회를 늘리고 학생들의 진로지도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계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포부를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지도도 함께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계열은 직업관 5가지 변수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계열에 따라 학생의 몇몇 개인특성과 가족특성 및 학교특성이 차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의 직업관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 내야할 과제를 남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순수한 계열별 직업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계열별 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개인, 가족, 학교특성들의 영향을 통제된 검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경기도 교육연구원(1990). 학습과 진로준비.  
 경상북도 교육연구원(1992). 고등학교 진로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교육부(1991). 진로선택자료(고등학교용).  
 권용환(1990).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규(1990). 직업관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선(1989). 진로의식 성숙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기(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성원사.  
 \_\_\_\_\_(1991).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배영사.  
 \_\_\_\_\_(1990).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배영사.  
 김택춘(1989). 농업고등학교 여학생의 의식구조와 지도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교부(1990). 진로교육자료.  
 문수일(1988). 직업학교 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춘식(1980). 학부모학생의 직업관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중기(1991).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직업가치관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병숙 외 6인(1992).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신덕자(1988). 직업가치관과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장섭(1987). 고등학교학생들의 직업에 관한 가치관 연구,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호선(1986). 상업계 고교생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송옥 외 7인(1993). 고등학교 가정 교사용지도서, 교학사.  
 이무근(1983). 진로교육의 의의와 진로지도의 필요성, 서울:한국출판사.  
 이정근(1984).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중앙적성연구소.  
 이하원(1984). 진로문제에 대한 학생과 그 부모의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석민(1986). 미래사회에 대비한 건전한 직업관 형성, 서울:교육연구원.  
 정진구(1987). 인문계고교생의 진로선택경향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인호(1987). 농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청남도 교육연구원(1990). 진로교육자료.  
 충청북도 교육연구원(1992). 직업세계 정보자료.  
 통계청(1993). 한국통계월보, 9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1987). 노동경제연감.  
 한국교육개발원(1988). 고등학교 진로교육지도안.  
 홍영란(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황주환(1982). 진로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과제와 전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Ginzberg, E. et al.(1966). *Occupational Choice;: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p.59-117.

Supper, D.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8, pp.189-190.